

또 다른 소외, 왜곡되는 老人像

-SBS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통해서 본 매스 미디어의 노인 對象化 문제

임현숙

1. 시청률 제일주의의 격전장, 주말 저녁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유형은 대체로 두 부류이다. 화려한 버라이어티 쇼에 등장하는 인기 연예인들을 보기 위한 10代 전후의 청소년들이거나 텔레비전 이외의 별다른 놀이 도구를 갖지 못한, ‘주머니 가벼운 10代 아닌 사람들’ 뿐이다.

後者인 경우, 이름도 채 기억하기 전에 쉴 새 없이 바뀌어 나오는 10代 우상들의 현란한 몸짓이며 방청석의 괴성을 피해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보지만 교양 아닌 오락으로 편안히 즐길 만한 프로그램은 그다지 마땅치 않다.(표1)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왕성한 구매력으로 新소비층을 이룬 10代들을 겨냥한 각종 연예 오락 상품의 치열하고도 관행화된 관측전을 멀거니 지켜볼 도리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 연예인들을 앞세운 시청률 대격전 틈바구니에서 村老 一羣과 함께 등장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PD: 이상훈, 이동규, 진행: 서세원, 신은경)는 분명 새로운 컨셉의 주말 계릴라로 느껴질 법한 프로그램이다.

누구에게라도 낯설지 않게 느껴질 시골 어르신들의 꾸밈 없고 넉넉한 우스갯소리는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굳이 그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도, 제 고향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도 없이, 그저 어디서라도 쉬 마주치고 또 정겹게 다독거려 줄 것 같은 분위기이다.

바로 그 친부모, 친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브라운관을 통해 만나면서 빠듯한 일상에 쫓기던 도시인들은 누구나 앓고 있던 향수병을 조금씩 위안 받는다. 그리고 고향의 부모에게 무심했던 자신들을 돌아 볼 기회를 갖는다.

<고향에서 온 편지> 코너처럼, 서툰 어투와 어정쩡한 자세지만 진정으로 열심히 객지의 자손들을 염려하고 챙기는 어르신들 모습과 육성에 누군들 웃음 밑바닥으로 가슴 한켠이 저려 오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의 미덕은 아마 이런 점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색다른 웃음으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는 주말 저녁, 달리 마땅한 바깥 놀이나 즐길 꺼리 없는 도시 소시민들을 텔레비전 앞에 다가앉게 만든다. 연예인 중

심미 소란스런 프로그램들에 식상해 있던 많은 소극적 시청자들을 또 하나의 거대한 틈새로 인식하고 파고든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토요일 저녁 6시 - 8시까지의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

	KBS 1	KBS 2	MBC	SBS
6시 - 7시	15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00 TV 데이트 50 토요 시트콤 <행복을 만들어드립니다>	10 GO! 우리들의 천국	00 기쁜 우리 토요일
7시 - 8시	00뉴스 네트워크 30 사랑의 리퀘스트	“ “	00 쇼! 토요 특급	

*표1

2. 노인 출연 프로, 그러나 노인 대상 프로는 아닌

강력한 오락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한 기능을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은 일단 충분히 오락성을 인정 받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시작해 11월 7일을 기해 35주 째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갖는 몇 가지 새로움과 미덕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가 보는,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 노인들이 출연하지 않아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노인들이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누가 보는 프로그램인가 생각해 보자. 출연진이 연예인에서 시골 노인들로 바뀐 것 외에 주시청층은 여전히 1,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청석에 소녀 부대를 포진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괴성과 폭소를 터트리도록 유도하는 거나 <장수 퀴즈> 코너의 출제 문제(표3) 및 진행 방식을 보아도 그런 혐의가 짙다. 주름진 얼굴에 딱칠 같은 분장이며 의상을 입혀서 바보스런 연기를 하게 하는 <내 고장 CF> 코너는 차마 눈길 주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노인들 특유의 작은 몸 동작, 일상적인 말투까지 모두 웃음 유발 인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 젊은 사람들이나 알 만한 걸 문제로 내놓고 노인들을 동문서답하게 하여 아이들

유행어처럼 정말 ‘사오정’ 취급을 해 버리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적어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즐거워 할 사람들이 그 연배의 노인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거창한 제목은 그야말로 표면적 구호일 뿐 앞에서 제기한 시청률 제일주의의 폐해는 여전한 문제로 연장되고 있는 셈이다.

시골 노인들을 방송에 끌어 들인 저의는 단지 ‘신선한 얼굴’ 이 필요했기 때문일 뿐이며 몇 년 전부터 봄을 이루던 보통 사람 출연시키기의 한 일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 통신에 올라 온 우려의 목소리들

SB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 보아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시청자 투고를 신는 <Open bbs>란에 올라온 <서세원의>에 대한 의견 총 18건 중 긍정적인 평가가 6건인데 비해 부정적인 평가는 12건으로 두 배나 많았다.(표2) 전체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투고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한 노인 독자의 신문 투고 내용도 인용해 보겠다.

‘... TV 프로엔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주부 대상, 일반 성인 대상 등이 있는데 이들보다 더 오락이 필요한 노년층을 겨냥한 프로는 없다. 노년층이 수입이 없고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인들을 등장시켜 희화화(戲畵化)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방청객 소녀들이 지르는 조소성 괴성은 참기 힘들다. 방송사엔 양식도 사람도 없는가.....’ (9월 21일자 조선일보)

<방송사 홈페이지 시청자 투고 내용 분류>

긍정적 견해 (6건)		부정적 견해 (12건)	
효도 및 경로 사상 고취	2건	노인 비하. 희화 및 이용에 분노감 (장수 퀴즈에 대해)	9건 (4건)
고향과 부모 생각	2건	동심 작위성	1건
재미와 흥미	1건	진행자 불만	2건
문제점 시정 자세	1건		

*표2

위에서 보듯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비교적 다양한 데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명확하게 집중돼 있어 흥미롭다. 즉, 부정적인 견해의 상당

수가 노인을 바라보는 이 프로그램의 시각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장수 퀴즈>의 출제 문제며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장수 퀴즈>는 어떤 내용이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2) 노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장수 퀴즈>

진행자 서세원 씨의 표현대로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보는” “장안의 화제” <장수 퀴즈> 순서를 살펴 보자. 과연 어떤 지혜를 보여줄 수 있었을지, 최근 한 달 가량 출제된 퀴즈 문제 유형부터 분석해 보겠다.

<최근 한 달간 출제된 <장수 퀴즈>의 문제 유형>

1주 : 10월17일

출제 문제		정답	비고
1	이방 저방 해도 이방만 한 것 없다?	서방	
2	토끼간은 누구를 위해 구했나?	용왕	
3	원치 않는 아기를 떼는 방법?	높은 데서 뛰어 내림	
4	무슨 일이나 잘 끼는 사람?	감초	
5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남자는 딴 생각을 한다는 의미는?	외도 즐김	
6	제주도를 삼무라 하는데?	도둑, 거지, 대문 없다	@
7	제주도에 전하는 전설의 섬?	이어도	@
8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름?	이승만	
9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뜻?	열심히 하면 된다	
10	예전에 방안에 두던 간이화장실?	요강	
11	긴급한 위험에 빠졌을 때?	119	
12	예전에 육지로 급히 연락하는 방법?	봉화	
13	심청이 인당수에 왜 빠졌나?	아버지 눈 뜨게 하려	

2주 : 10월24일

출제 문제		정답	비고
1	여자는 여우 같다. 남자는?	늑대	
2	우는 아이 울음 그치게 하려면?	곶감	
3	미국 대통령 사는 곳?	백악관	
4	옛날 여자들 정절 지키려 가슴에 품던 것?	은장도	
5	놀부의 아들은 몇 명?	1명	
6	다음의 노래 제목?	차차차	
7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바지?	힙합 바지	#
8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9	처녀가 시집갈 때 가마에 넣어주던 것?	요강	
10	옛날 더부살이하며 일해 주던 사람?	머슴	
11	10월은 자나깨나?	불조심	
12	어린이 영당이에 있는 푸른 점?	몽고반점	
13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	
14	민간요법에서 다래끼가 나면 어떤 방법을?		
15	심청전에서 심청이의 몸값은?	공양미 3백석	
16	딸 밥은 어떻게 먹는다?	서서 먹는다	

3주 : 10월31일

출제 문제		정답	
1	아주 뻔뻔한 사람을 일컬어?	벼룩 같다	
2	전통혼례식에서 신랑신부가 나눠 마시는 술	합환주	
3	5.16때 정권을 잡은 사람?	박정희	
4	동양화의 사군자란?	매란국죽	
5	석달 열흘을 굶어도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임	
6	여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려 조금씩 모으는 돈?	갯돈	
7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것?	잠꼬대	
8	남자와 여자가 입맞추는 걸 서양말로?	키스	
9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다 시름시름 앓은 것?	상사병	
10	아침에 이것이 울면 손님이 온다는데?	까치	
11	택시는 기사가, 비행기는?	조종사	
12	도량이 좁고 좁스러운 사람?	좁쌀영감	
13	다음 노래는?	대머리 총각	\$
14	지네에 물렸을 때는?	닭 똥을 바름	?
15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러 가는 곳?	산부인과	#
16	이것이 두꺼우면 이성을 밝힌다는데?	아랫입술	
17	예전에 뒤통처럼 생겨야 얼굴이 곱다 했나?	보름달	

4주 : 11월7일

출제 문제		정답	비고
1	사위를 일컫는 말?	백년 손님	
2	아내를 아껴 주는 남자?	애처가	
3	아내만 보면 별별 떠는 남자?	공처가	
4	노래의 주인공이 입은 옷 색깔?	노란 색	\$
5	김중배가 심순애에게 준 것은?	다이아몬드	
6	마음에 드는 여자 보고 눈 찡긍거리는 것?	윙크	
7	혼기 넘긴 나이 많은 처녀	노처녀	
8	땅 지키는 군인=육군, 바다 지키는 군인?	해군	
9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10	민간요법에서 벌에 물렸을 때?	된장 바른다	?
11	우유나 분유는 어떤 동물의 젖?	젖소	
12	설사가 심할 때 먹으면 좋은 것?	감	@
13	돈 한 푼 없이 놀고 먹는 사람?	백수건달	
14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 대?	중매	

*표3

대체로 <장수 퀴즈>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특별한 주제 없이 산만하다. 노인들이 살아 오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을 법한 문제도 있는가 하면 하등의 가치도 없는 문제, 정답을 들어도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생소하거나 도저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가. 문화의 세대 차이로 인한 언어적 간극 희화

가령(#) 10/24일7번 문제는 <힙합바지>가 정답인데, 즉각 나온 대답은 “홀테 바지!!” 였다. 또 10/31일15번 정답은 <산부인과>인데, 한 할아버지가 자신있게 “도립병원!!” 하고 외치는가 하면, 다른 출연 할머니들은 “죄 집에서 낳았는데... ..” 하며 우물거린다. 방청석에서 요란한 웃음이 쏟아져 나왔음은 물론이다. 대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소란스런 분위기 탓에 질문의 뜻을 잘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기 일쑤이다. 이런 모든 말끝마다 번번이 폭소가 터져 나오자 기분이 상한 제주 할머니 한 분은 정색을 하고 “웃지 마옵소계!” 하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나. 담백함에 대한 오해 ? 노인들은 무지하다?

노래 한 곡을 들려 주고 제목 같은 걸 맞추게 하는 문제(\$)도 하나씩 포함돼 있는데, 가사 처음 부분에 정답이 이미 나와 설마 하는 생각에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하거나 너무 쉽게 맞히고 찡찡한 표정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문제 수준이 너무 낮아 출연 노인들이

얽잡아 보인 듯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출처가 불분명한 민간 치료법 남발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배치한 듯한 민간요법 관련 문제(?)는 의외의 문제를 야기한다. 의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됐다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일부만 통용되는 방법을 문제로냄으로써 정작 나오는 대답들은 중구난방이거나 전혀 다른 방법들이곤 한다. 때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 방법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해 소개하기도 해 소박한 시청자들을 오도 시킬 우려까지 있다. 예를 들어 벌에 쏘였을 때 된장을 바르면 된다는 정답 내용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출연자들은 잇몸에 낀 때(잇똥, 잇때)를 바르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예전에 양치질 안 하던 시절 얘기며 “손톱으로 긁으면 누리추리하니” 하다는 등의 불결한 대사에 이어 뽀뽀 얘기로 이어지는데, 지난 추석 전후에 벌 쏘여 사망한 사람 뉴스가 여럿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청자라면 어쩐지 미덥지 않아 했을 게 분명하다.

라. 야한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고란에 □ 표시한 문제들은 의도성이 더 역력하다. 주로 저속하고 선정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적당한 문제들이고 진행자 서세원 씨는 예상대로 역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낸다.

10/24일1번 문제(정답:늑대) 뒤엔, 부부로 출연한 할머니에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였냐며 물어 “님 각시 집서 자고 올 때였다” 는 대답을 끌어내고, 3번 문제(정답:백악관) 뒤엔 “요즘 클린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가” 물어 “성관계!” 니 “작은 각시 얻어 갖고” “일시적 실수” 니 하는 등의 저속한 대화를 유도한다.

9번 문제(정답:요강) 뒤엔 출연 노인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요청해 “결혼한 거 자꾸 물어 보슈. 자꾸 물어 보시우. 첫날 밤 기가 맥혔지. 세상에 그렇게 재미스런 일이 없었지.” 하며 너스레를 떨게 한다.

10월 31일 8번 문제(정답:키스) 뒤엔, “키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뽀뽀 가끔 해 주느냐” 고 물어 출연한 노인 부부가 “야, 나도 키스 한 번 해 보자” “아, 오늘 입 두 번째 맞췄네” 해 가며 실랑이 속에 입맞춤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하게 한다. 연이어 첫날 밤 이야기로 화제를 몰고 가는 걸 할머니가 “인자 고만 허요” 하고 잘라 버렸다. 16번은 문제부터 노골적으로 선정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냥 지나칠 리 없었음은 물론이다. (문제: 신체중 여기가 두꺼우면 색을 밝힌다는데? 정답:아랫 입술)

11월 7일 방송에서도 영낙없이 기회는 있다. 6번 문제(정답:웁크) 뒤에 출연 노인 부부의 과거 이야기로 화제를 몰고 가 “어떤 여자랑 잤나 싶으고, 마마 죽겠어요” 하는 식의 푸념을 늘어 놓게 해 스스로 자임한 가족 프로그램 표방을 무색하게 한다.

이런 방법의 진행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계속돼 왔는데, 지난 10월 10일의 경우 만 해도, 성기능을 못하는 내시, 첫날 밤, 클린턴의 여자 관계, 예전의 남녀 데이트 장소인 물레 방앗간을 소재로 한 얘기들이 질편하게 전개되었다.

3) 노인 인격 비하의 심각성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퀴즈 중간 중간은 물론 도입부부터 혼자인 노인들 짝 구하기를 열심히 부추기는가 하면 은근히 이성 밝힘증을 조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진심으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젊은 사람인 이 프로그램 PD이름까지 거명해 가며 장난스레 교재를 권해 지나친 무례함으로 방송의 품위를 훼손 시키기도 한다.

노인들은 걸핏하면 “하르방 얻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구해 달라” “할마이 하나 얻어 도란 말이야” “아들아, 예쁜 할머니가 언제 온다고 하더냐?” “영감이 없다, 영감 하나 오늘 주워 오면 좋겠다” “나는 이래도, 나이 얼마 안 돼도(95세), 인물 잘 나고, 떡대도 좀 크고, 남자 같이 생겼는 거 그런 거 구한다” 라며 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대화들은 시골 노인들의 소탈한 웃음 탓에 특별히 자극적이거나 외설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이미지만으로 노인들을 비취 주었을 때 모든 노인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편견 속에 가두어 바라보게 만든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노인들은 원래 다 저렇게 적당히 단순하고 속물스러운가 보다, 달리 지향하는 가치나 관심사도 없나 보다 하고 젊은 세대들이 단정짓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가. 웃음의 주체 아닌 대상으로서의 노인

그렇다면 이토록 한없이 색 밝히는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가장 손쉽게 시청자를 붙잡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5초 단위로 웃음이 터져야’ 된다는 상업방송의 지상명제 앞에서 달리 진지하게 노인들의 고민이나 생활 속내를 관찰하고 연구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에 제작자들은 항변할지도 모른다.

“웃자고 하는 애긴데 뭘!”

“웃겨야 되니까!”

물론 오락 프로그램의 특성상 웃음 유발 장치의 배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나이 탓에 지적 순발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치와 기지를 요하는 문답퀴즈를 진행한다는 컨셉, 그 부조화를 웃음 유발 장치로 동원한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웃고 있는 것이 정작 출연 노인 당사자나 그 연배 노인 시청자들 아닌 젊은 사람들 뿐이라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물론 출연 노인들도 비교적 즐거워 보인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신들 말 한 마디에 방청객들이 아우성을 쳐대고 진행자는 배를 움켜 쥔 채 땅바닥을 굴러대는데도 무슨 일인가 멀뚱거리고 있는 노인들도 많다.

나. 노인 인격 비하의 결정체 ‘사오정 만들기’

이처럼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점점 도가 지나쳐 ‘의도적인 사오정 취급’ 까지 하기에 이른다. 10월 24일, 10월31일 두 주에 걸쳐 심각하게 노출된 문제이다. 비록 방송 중엔 웃음을 이끌어냈지만 불쾌한 뒷 맛과 죄스러움을 여운으로 남겼다.

먼저 10월 24일의 경우, 시조대회에서 두루 수상했다는 한 할아버지에게 시조 한 수를 청해 놓고 그 유장함을 과시해 2시간 반 가량이 지난 뒤에도 고집스럽게 그칠 줄 모르는 답답한 사람으로 모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장수 퀴즈>에 출연시켜 놓고도 시조 <청산리 벽계수>를 청한 뒤, 길어질 조짐을 보인다며 “계속 하세요. 우리끼리 문제 풀죠” 하곤 따돌리기 퀴즈를 진행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머쓱해진 시조할아버지가 우물쭈물하자 “괜찮아요, 하세요. 할아버지, 계속하세요.” 하며 부추긴 뒤 “공포의 시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나도 들어야 됩니다. 아, 계속하세요” 라고 말하여 방청석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방송이 끝나가는데도 시조를 또 청하자 순진한 할아버지는 망설이며 “남창을 할까, 여창을 할까? 그러면 저, 초장만 하고 끝내지” 라며 시조를 읊기 시작해 완전히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시조할아버지를 ‘분위기 파악 못 하는 사오정 사촌’ 째름으로 취급해 버림으로써 한 개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을 만치 노인 인격을 비하하고 시조의 품격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10월 31일은, 시조할아버지 제 2탄, ‘농담 할머니’ 가 등장한다.

노인들 특유의 느린 사변을 농담으로 몰아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 놓고는 곧 모두에게 외면할 것과 무시한 채 퀴즈나 풀자고 주문한다. 정작 농담 할머니 본인은 자꾸 퀴즈

에 끼려고 하면서 “아, 나는 문제도 없이...” 라며 어색해 하는데, 진행자들은 계속 얘기나 하라고 말한다.

어수룩한 시골 할머니 한 분이 그 좋아라 했을 데레비에 나와 바보 취급만 당하다만 것이다. 다행히 이런 식의 악의적인 ‘사오정 만들기’ 는 그 다음 주에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다. 젊은 세대의 잣대로 재는 노인 세상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웃음에 마음 편할 리 없다. 더구나 그 연배 어르신들이라면 모멸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몹시 기분이 상해 세태를 개탄했을 것이다.

카메라를 피해 달아나며 “웃을 이렇게 입고 어떻게 찍어, 더럽구로” 하는 허술한 웃차림의 할머니를 기어코 따라가 찍어 보인 11월 7일의 내용은, 노인 인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제작진의 횡포로 보여진다. 나이 들어도 남 앞에 설 땐 의관을 단정히 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살아 오셨을 그 어르신들한테 ‘꾸밈없어 좋지 않느냐’ 는 논리로 늘 속옷 수준의 차림새를 요구한 듯한 화면 속 그림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카메라 저편의 자식들이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초라하고 궁색스러워 보이기를 즐거워 할 어르신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달리 호사스레 치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향 동네 모습을 뒷 배경으로 한 컷 보아도 헛간이나 창고 같은 너저분한 곳 말고 정갈하게 쓸고 닦은 뒷마루나 마당, 마구 그리워지는 우물가 혹은 시원한 정자 아래 같은 데를 보고 싶은 게 고향 떠난 사람들 마음이다. 화면에 보이는 어르신들 모습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며 카메라 앞에 서시는 그 어르신들 마음도 그러하리라는 짐작에서이다.

10월 31일의 방송에서는 연대서명으로 출연신청을 해 온 남원 건지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진행자 서세원 씨는 “근데 이 서명을 했는데, 한글 못 쓰시는 분들이 빠졌습니다. 글씨 아시는 분만 이렇게.....” 하고 서명 종이를 들어 보이며 방청객들과 함께 한바탕 웃고는 “웃으실 일이 아니죠. 옛날엔.....” 하면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참된 웃음의 의미와 때를 헤아릴 줄 모르는 우리 방송 문화의 천박함에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다.

이처럼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는 노인이 나오지만 노인은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노인들은 웃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대상일 뿐인 것이다.

3. 美德을 감아 먹는 作僞性

1) 각색된 대사들

프로그램의 첫 순서인 <유치원에서 온 편지>코너는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서 좀 걸도는 감이 없지 않다. 어린 아이와 노인의 마음은 순수해서 서로 통한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앵무새처럼 시켜서 외운 말만 조잘대고 들어가는 유치원생들의 모습은 유난히 작위성을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 더구나 잦은 이성친구 이야기는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 거부감마저 든다.

남자 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나 너 싫어!” 하며 우는 시늉까지 하는 어린 여자 아이의 연기나 “너는 나의 멋진 왕자야, 너 나랑 사귀자” “저 시집 보내 주세요” 하는 식의 말을 종알대는 모습들은 결코 귀엽지 않다. 오히려 팽과리를 들고 나와 땅에 뒹굴어 가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쳐 대는 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절 받으세요” 하며 넙죽 엎드려 큰 절 하는 두 형제 아이들의 모습이 훨씬 살갑고 현실의 동심에 가깝게 느껴진다. 요란한 웃음소리는 아니어도 잔잔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게 만든다.

한편, 그런 대로 고향의 맨살을 만지는 듯해 호감을 주던 <고향에서 온 편지> 코너도 꾸민 듯한 말들이 늘면서 감동을 잃고 있다. 노인들 사이나 부부간에 말싸움이 생겨 계속 서로 말꼬리를 잡으며 다투는 모습은 매주 잦아지면서 작위적인 냄새가 풍겨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바다에 들어가 잡아 본 전복의 크기가 세수 대야만 하다느니, 허풍 떨지 말라느니 계속 다투는가 하면, 부부끼리는 젊은 시절 때의 외도 건이며 한량 노릇까지 다 들추어 내자꾸 다투도록 주문한다. 미국 유학 어쩌구 서울대 저쩌구 하는 아들 자랑 끝에 “시끄러, 우리 아들 청와대 있어, 까불기는!” 하는 식의 노인들 창작 같지는 않은 말막음 방식까지 동원된다. 노인들을 왜 저렇게 토닥거리게 할까? 재밌으니까! 단지 그뿐이다.

“천 만원 갖고 와라!”

“옆 집에는 새 보일러 났다더라, 올 겨울에는 유난히 춥다지, 아마..... 부담은 갖지 말고 한 번 다녀 가거라. 뭐, 태양열이라나.....부담 갖지 마라, 음!”

“00야, 세상이 좋아서 sbs 나왔다! # # 야, 나, sbs 나왔어! &&야! sbs.....”

2) 제 살 깎기식의 작위적 연출

이런 식의 각색들 대부분은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것들이지만, <내 고장 CF> 순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다. 주름지고 등 굽은 어르신들한테 화장이며 어색한 고전의상을 입혀 억지 연기와 유치한 대사를 하게 하는 순서는 심한 거부감을 준다. 재미는 커녕 추한 느낌이 들게 돼 제작자의 지시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배역 노인들이 무색해 보이기가

지 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작위성이 짙어지는 현상은 아이디어의 고갈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 살 깎기에 불과한 위험한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의 미덕이 그나마 덜 가공된 시골 어르신들 모습에서 자연스레 푸근함과 그리움을 맛보게 해 주는데 있음을 상기할 때 굳이 이런 무리수를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뿐 스스로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인 것이다.

제작자의 어떠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여섯이면 여섯, 자식들 모두의 이름을 한 번씩 다 소리내 불러 보는 그 속마음의 진정성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에 숨결을 불어 넣는 미덕의 본질이다.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가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표피적인 웃음을 끌어 내려 온갖 치장을 더 할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미덕을 지켜내고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다양하게 방법을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 대안의 모색

1)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절대 빈곤

방송 전파는 제한적이며 어디까지나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방송사의 상업적 이윤 추구만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시청층 편중 현상은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익적 의무는 소홀히 한 채 노인들을 비롯해 구매력이 낮은 집단은 철저히 소외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방송의 현실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다양한 문화 경험을 향유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텔레비전에 대한 매체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소외 계층을 다시 소외시키는 또 다른 소외이다.

이처럼 구매력과 상품성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젊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유통시키는 공중파 방송 시장에서 오직 하나뿐인 노인 출연 프로그램? 그것도 주말 저녁에? 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는 분명 특별하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 이외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방송사들의 온갖 기술 향상과 외양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 문화의 낮은 질과 많은 과제를 여전히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는 그 제목부터 나름대로의 의도성을 보여줘 왔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농어촌의 노인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소외 문

제의 한 자락이라도 접근해 보려는 제작진의 의지가 시청률 중심적인 사고의 한 켠에는 분명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지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발현할 필요가 있다.

끊임 없이 값싼 웃음을 티트려서라도 시청자를 붙잡아야 하는 풍토에서 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출연자를 동원하든 천박한 상업주의에 휘둘리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질적 지평을 한 차원 드넓힌다는 용기로 <소외 프로그램>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23일, 노인 문제를 다룬 단편 드라마 <공춘택 씨의 계약결혼>이 <MBC 베스트극장> 시간에 방송되었다. 비록 일회적이었지만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배금주의적 시각과孝의 본질을 곰곰이 짚어 보게 한 수작이었다.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도 시청률이라는 양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텔레비전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진정한 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노인 프로그램으로 거듭 나 더욱 가치를 빛낼 수 있어야겠다.

2) 생활 속에서 빛나는 노인의 모습 찾기

노인들을 더 이상 웃음의 객체 아닌 주체로 바로 세우는 일이 이 프로그램의 급선무이다. 방청석에 온 가족이 노인들을 모시고 나와 앉을 수 있어야겠다.

<장수퀴즈> 내용이나 형식도 좀더 노인 생활에 밀착된 것일 필요가 있다.

위의 <표3>, 비고란에서 @표시가 있는 문제들을 살펴 보자. 가령 ‘이어도’ 같은 답은 제주 출신 아닌 다른 고장의 노인이라면 그리 쉽게 맞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三無의 종류도 자신 있게 기억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또 설사를 멎게 해 주는 과일이 감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의 본고장 청도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과 는 밤에 먹으면 좋지 않다고 주의를 일러 주는 사과의 산지 충주 할머니는 조금도 무지해 보이지 않는다. “수매가를 높게 쳐 달라” 거나 “빨리IMF를 풀어 달라” 는 주문을 당당 하게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노인들 생활 가까이로 다가가 문제를 찾아내 온다면 멀뚱히 앉혀 놓고 웃음거리 만드는 일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만의 하나, 일부러 웃음거리를 만들려 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형식에서도, 상경한 어르신과 객지의 자손들을 묶어 祖孫이 힘 합쳐 퀴즈를 풀게 하 거나 신세대. 구세대의 물건, 용어 같은 걸 바꿔 배우기 하는 순서 같은 걸 마련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을 법 하다.

첫날 밤이니 주색 잡던 시절 얘기가 아니어도 즐거운 웃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과를 손가락으로 굽어 잡숫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향맨 최성훈 씨가 대신 굽어 주는 장면이나 제주 선인장 농장에서 가지 조심하라고 그에게 할머니들이 몸빼 바지를 입혀 주는 모습 같은 건 따뜻한 웃음을 오래 남긴다.

물질하다 쉬면서 신명나게 불러 대는 5,60년 경력 해녀 할머니들의 이어도 타령은 얼마나 건강하고 즐거운가.

생활 한 가운데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 웃음은 그 분들의 것이다. 그 웃음이 텔레비전을 통해 모두에게 전해졌을 때 누구라도 함께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있음직한 어르신들 모습이며 마음을 그려 보여 오래 마음을 적셔 주는 엔딩 애니메이션처럼 말이다.

고향 어르신들의 넉넉한 마음에 인기의 비결을 기대어 온 <... 좋은 세상 만들기>가 진정 그 분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일신해 그동안 빚진 고마움을 갚았으면 좋겠다.